

# SK, 美 필수약품 핵심공급사 선정

(자회사 앰팩)

2018년 앰팩 지분 100% 인수  
컨소시엄 참가... 1조 규모 예산지원  
연속 공정 기술, 핵심적 역할 기대

SK가 미국 필수약품 확보 사업을 맡게 됐다.

SK그룹 지주사 SK㈜는 최근 미국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필수 의약품 확보 사업에서 원료의약품 생산법인 앰팩이 핵심 공급처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앰팩은 미국의 바이오 위탁 개발·생산 업체로, SK가 2018년 지분 100%를 인수한 회사다. 지난해 SK가 글로벌 의약품 생산법인을 통합하면서 SK팜테코로 편입됐다.

앰팩은 코로나19 유행 등 팬데믹을 대비해 비영리법인 플로우가 주도한 컨소시엄에 참가했다. 시비카와 버지니아 커넬스대학 M4ALL 등과 함께 하며, 최대 1조원 규모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앰팩은 이에 따라 미국 내 생산설비에서 원료 의약품을 생산에 플로우에 공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를 위



SK팜테코 버지니아 생산설비.

/SK㈜

한 필수 의약품과, 미국 전략 비축 원료 의약품 등을 만들게 된다.

SK팜테코의 아슬람 말릭 CEO는 “현재 앰팩이 보유한 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 설비 외에, 버지니아 공장 내 원료의약품 생산 설비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며 “앰팩이 생산한 원료의약품은 전략 비축 원료의약품으로 장기적으로 미국 내 공급될 필수 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는 이번 컨소시엄에 참가해 우수한 품질 원료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독

자 공급할 수 있음을 검증받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앰팩이 보유한 ‘연속 공정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K㈜ 관계자는 “SK는 바이오·제약 사업을 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이번 컨소시엄 참가로 고품질 원료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CMO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에보트, 센서 부착만해도 혈당 체크

최대 14일동안 연속 측정 가능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효과 ↑



에보트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센서를 팔에 부착하는 것만으로 매일 혈당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CGM)’ 시스템이 국내 처음 출시됐다. 매일 고통스러운 손가락 채혈을 통해 혈당 수치를 확인해야했던 국내 500만명의 당뇨병 환자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에보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연속 혈당 측정(CGM) 시스템 ‘프리스타일 리브레’를 국내에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대응계약이 국내 종합병원, 의원, 공식 지정 약국에서 프리스타일 리브레 연속 혈당 측정 시스템의 공동판매와 유통을 담당한다.

프리스타일 리브레 연속 혈당 측정 시스템은 500원짜리 동전과 비슷한 크기의 센서를 팔 위쪽 (상박)의 뒷부분에 부착한 후 최대 14일 동안 연속적으로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 채혈이 필요없다. 센서는 얇은 접착 패드를 사용해 피부표면에 부착되고, 센서의 필

라멘트(5.5mm 길이)는 피부바로 밑에 삽입되어, 매 1분마다 피하지방의 세포간질액(ISF)을 통해 당 수치를 측정한다.

센서를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스캔하면 실시간 당 수치 결과와 분석 그래프를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다. 이 센서는 최대 14일 동안 연속적으로 혈당 측정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허가 받은 연속 혈당 측정 시스템들 중에서 가장 사용 기간이 길다.

임상 연구와 실사용 데이터에 따르면, 프리스타일 리브레 연속 혈당 측정 시스템은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관리 효과를 높이고, 고혈당증과 저혈당증 발생 빈도를 낮추는데 도움을 줬다.

/이세경 기자

# ‘빅스마일데이’ 첫날에만 331만개 판매

‘보복소비’ 트렌드 타고 흥행 청신호  
누적랭킹 1위 제품 매출 14.2억 달성  
대용량 구매 가능 제품 수요 증가



이베코리아 ‘빅스마일데이’ 행사 이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 진행되는 대규모 할인 행사에 고객들이 지갑을 열고 있다.

대한민국 온라인 유통기업 1위 이베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 옥션, G9의 상반기 최대 쇼핑 축제 ‘빅스마일데이’가 행사 첫날 18시까지 누적 판매량만 331만개를 넘어서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도 지난해 5월(330만개)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한 것이다.

매진 행렬도 이어갔다. 특히 디지털 기기와 각종 생활가전이 인기를 끌었

도 인기다. 실제로 ‘삼성 그랑데 건조기’는 8억 8000만원, ‘로보락 로봇청소기’는 6억 5000만원, ‘LG전자 스타일러’는 4억 3000만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다.

대용량으로 구매해 둘 수 있는 생필품과 가공식품을 찾는 수요도 많다. 18시 기준 ‘베베슬 아기물티슈 캡 20팩’은 2억 3000만원, ‘깨끗한나라 순수브라운 화장지’(27m30롤x2팩)은 2억 7000만원, ‘팜퍼스 베이비드라이 기저귀’는 2억원 어치를 각각 판매했다. ‘오뚜기밥’은 1억원, ‘CJ제일제당 비비고 사골곰탕 18개’는 단일 상품 기준 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오프라인 매장 and 연계한 O2O서비스 ‘픽업데이’도 행사 초기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백지연 수습기자 wdus0248@



지난 19일 진행된 동국생명과학-레메디 업무 협약식에서 동국생명과학 정기호 대표이사(왼쪽)와 레메디 구자돈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동국생명과학, 소형 포터블 엑스레이 독점계약

동국생명과학은 의료용 방사선 기기 개발 전문기업 ‘레메디’와 ‘소형 포터블 엑스레이’의 구성 제품 및 향후 개발될 신제품(모든 의료용 또는 업그레이드된 신형 제품이 포함된 이동형, 고정형 X-ray 촬영 장비)의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한 ‘소형 포터블 엑스레이’는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 휴대가 가능하며, 방사선 피폭량이 낮은 저선량 X-선을 사용했음에도 영상 품질이 뛰어난 영상진단장비이

다. 또한, 별도의 ‘차폐 시설’ 대신 ‘이동식 차폐막’ 설치만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동국생명과학 관계자는 “이 제품은 저선량 X-선 사용에도 고해상도의 영상 품질과 이동 편의성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까지 낮춘 진단 장비”라며 “이러한 장점들로 X-ray 장비 시장에서 기존 제품들을 세대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동인비, 기초부터 건강하게 ‘자생 퍼펙트 쿠션’

무너짐 없는 메이크업 연출

KGC인삼공사가 프리미엄 홍삼 화장품 브랜드 ‘동인비’의 자생 에너지로 메이크업까지 탄탄하게 해주는 에센스 쿠션 ‘자생 퍼펙트 쿠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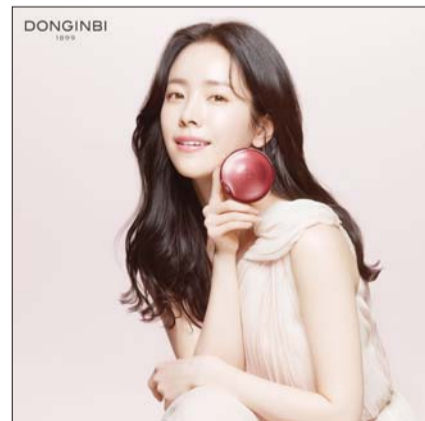
‘자생 퍼펙트 쿠션’은 ‘자생 원액에센스’의 핵심 성분인 ‘자생 클리어 스킨 포뮬러’를 함유해 피부 자생력을 길러주고 피부 바탕부터 건강하게 케어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자생 클리어 스킨 포뮬러’는 KGC인삼공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성분으로, 홍삼 클리어 파우더와 KGC 수딩

콤플렉스 그리고 조사포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생 퍼펙트 쿠션은 자연스럽고 수분감 넘치는 커버가 가능해 쿠션 하나만으로도 밝고 생기 넘치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특히, 균일한 미세 입자는 피부에 묻힘 없이 부드럽게 발리고, 피부에 편안하게 밀착되어 24시간 동안 메이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탄탄하게 지켜준다. 뿐만 아니라, 5중 루비셀 퍼프가 쿠션 베이스를 얇고 가볍게 레이어링 해주고, 물방울 모양의 디자인으로 구성돼 콧망을 옆이나 굴곡진 곳까지 섬세하게 커버해준다.



자생퍼펙트 쿠션

컬러는 화사한 아이보리(13호), 은은한 바닐라(21호), 차분한 베이지(23호) 총 3종으로 구성되어 피부톤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본품과 리필 하나를 추가 제공한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연질캡슐형 진통제 출시... 위장장애 최소화

GC녹십자, 통증·발열 완화에 효과

GC녹십자는 국내 유일의 연질캡슐형 마그네슘 복합진통제 ‘탁센 엠지’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탁센 엠지’는 근육통, 두통, 치통 등의 통증과 발열 완화에 효과가 있는 소염진통제이다.

이 제품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 중 소화기 관련 부작용이 적은 ‘이부프로펜’과 세산효과가 있는 ‘메타규산알루미늄산마그네슘’을 복합해

진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위장장애를 최소화 한 것이 강점이다. 특히, ‘탁센 엠지’는 ‘마그네슘’이 함유된 진통제 중 국내 유일의 연질캡슐형 소염진통제로, 정제형 제품 대비 체내흡수율이 높아 빠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윤진일 GC녹십자 브랜드 매니저는 “소염진통제 복용 시 위장 관련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라며 “기존 탁센 시리즈와 진통제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